

# 문화유산 매개, 의향 보성

## 콘텐츠로 태어난다

### 보성군, 문화재활용 공모사업 5건 선정

보성군은 2020년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공모사업에 문화재야행과 생생문화재, 향교, 전통산사, 고택활용 사업 등 5개 사업 선정돼 국비 2억 2천 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성 열선투와 보성읍성 등을 중심으로 보성군은 문화재야행 사업을 추진한다. 열선투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금신전선 상유십이' 장계를 올린 곳이다.

이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수군 재건과 임진왜란 승전의 대 전환점이 되었던 보성의 역사 속 이야기와 문화유산을 야경, 야사, 야화, 야설, 야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이자 등록문화재인 보성여관에서는 생생 문화 프로그램과 근대문화 체험을, 보성향교에서는 전통예절과 청소년 인성과 가치관 함양교육, 천년고찰 대원사를 중심으로는 전통산사 공연문화체험이 준비된다.

특히, 국가민속문화재인 이진래 고택과 열화정에서는 2020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고택·종가 활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와 얼을 되새기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예부터 보성은 의향, 예향, 다향의 고장으로 불려왔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고귀한 우리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나아가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 곡성군, 청사 신축 관련 주민설명회 실시

곡성군이 지난 17일 곡성읍을 시작으로 9월 중 전 읍면을 순회하며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곡성군 청사는 1977년에 준공됐다.

건축된 지 40년이 넘다보니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름 장마철이면 비가 셀까봐 옥상 한 편을 방수포로 덮는 헤프닝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행정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과 필요한 공간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 곡성군은 공간 협소 문제에 수많은 별관 운영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사무실로 인해 민원인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업무 효율성 저하됐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기본적인 신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군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청사 신축에 대한 찬반 여부와 신축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도 설문지를 비치하고 있다.

### 고흥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고흥군은 최근 고흥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고흥전

통시장은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비가림 시설 설치, 진입로 정비, 장옥시설개선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군은 행정안전부 관계 부서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고흥전통시장의 시설 및 주변 환경을 개

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근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신규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한운섭 기자

### 담양군,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운영

#### 25일까지 20명 모집

담양군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발굴 및 육성하는 풀뿌리공동체 다담돌사업의 안정적인 현장지원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은 마을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마을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료자는 앞으로 풀뿌리공동체 모니터링 및 현장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은 월산면 물구십리권역 활성화지원센터에서 다음 달 7일부터 6회에 걸쳐 운영되며 효과적인 마을 갈등 관리법, 마을저지

반에 대한 강연과 타 지역 마을활동가와의 대화, 마을활동가와 함께하는 현장 모니터링과 같은 선배 마을활동가와의 경험 공유 등으로 채워진다.

교육생은 이달 25일까지 20명을 모집하며, 신청대상은 마을리더 아카데미 등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주관 교육 수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담양=박종영 기자

### 해룡산업단지 2단계

#### 일부 준공 승인

#### 광양만권경제지

순천시 해룡면 호두·신성·선월리 일원에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중인 '해룡일반산업단지'의 2단계 부지 일부가 준공되어 입주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트이게 되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입주기업들의 편의에 따라 2023년 준공 예정인 해룡일반산업단지 2단계사업 1,261천㎡중 51.8%에 해당하는 653천㎡를 적극행정을 통해 지난 10일자로 일부 준공승인 하였다.

지금까지 해룡일반산업단지 2단계 부지에는 선 분양을 통해 35개사가 토지를 분양받아 4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14개사가 입주하여 공장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일부준공을 통해 해룡산단 분양 활성화와 사유재산권 보호 및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내다보았다.

광양=김승호 기자

###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 검사 확대 및 품종검정제 실시

####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는 2019년 공공비축미곡 검사 시 농업인구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검사효율성 제고와 국정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대형포대 검사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비축미곡 검사는 소형

포대(40kg)와 대형포대(800kg) 두 종류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형포대의 경우 창고 입고인부 부족으로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 출하농가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이 대형포대 출하를 선호하고 있다.

대형포대 검사는 농가의 편의 증진 및 검사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포장재 구입비와 작업비용, 창고 입

출고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 소형포대보다 많은 이점이 있다.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곡 검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게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농가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영광군-서광주세무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협약



영광군과 서광주세무서는 지난 17일 영광군청에서 김준성 영광군

수, 정순오 서광주세무서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민원의 경우, 서광주세무서와 영광군에서 상담민원 및 업무관련 민원에 대

해 각 기관을 방문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 및 납세자 편의 제공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영광빌딩 4층에 위치한 서광주세무서 광산지(구)영광읍사무소 1층에 개소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이전 통합 운영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